
코로나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최 옥 숙

“엄마, 나 어떻게 해~ 아이아빠가 코로나에 걸렸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사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됐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무증상이어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딸과 손주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이라고 했다. 딸과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좀처럼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저 사위가 별 탈 없이 빨리 회복돼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 뿐이었다. 다행히 사위는 열흘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사위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연이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안 그래도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무척 괴로워했는데, 자신이 안 좋은 쪽으로 연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자 사위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처음 딸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땐 나도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는 했다. 사위가 확진됐을 때 회사도 발각 뒤집혀서 곧장 사업장을 폐쇄하고 직원 모두가 보건소로 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 후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재택근무까지 하게 되었으니,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됐다.

하지만 사위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다. 다시 출근을 하게 된 사위가 미안한 마음에 커피를 사들고 와 동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다들 앞에서 마시는 시늉만 할 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잘 알지만, 마치 자신을 바이러스 대하듯 하는 것 같아 섭섭했다고 한다.

또한 사위는 직장상사들에게 연달아 불려가 자기관리를 잘못했거나 방역수칙을 어기지는 않았느냐고 취조식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결국 사위는 회사에서 크게 위축돼 지낼 수밖에 없었다. 대화의 주제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위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뭘 얼마나 돌아다니셨기에 코로나19에 걸리셨어요.”라며 대놓고 조심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

는 직원도 있었다. 사위는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념 없이 싸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자신을 몰아갔다고 답답해했다.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녔는데, 줄지에 회사에서 바이러스나 옮기고 다니는 위험인물이 되고만 것이다.

또한 “완치됐으면 안 옮기는 거지?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하네. 더 쉬지 왜 벌써 출근했어.” 라고 경계하는 직원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사위는 전과 달리 점심을 같이 먹자고 권유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사위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일 뿐이었다.

더 불편했던 건 따로 있었다. 사위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후 회사에는 <4층 ○○○에 근무하는 ○○○씨가 확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그 영향으로 건물 내 다른 부서에서도 사위가 확진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게 신분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웃음거리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한동안 사위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기도 했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가해자나 범죄자가 아니다. 하지만 ‘확진자’라는 단어에는 이미 ‘당신은 감염자. 대체 왜 감염됐어?’라는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다. 또한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추적해서 밝혀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식당’,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나아가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진충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하고 혐오의 말을 퍼붓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과 인식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의 부족한 인권의식이 확진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당국의 방역활동에도 큰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언젠가 입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